

광주의 상징물들 미디어 캔버스로



줄리안 오피작 '걷는 사람들'

Festival Of Gwangju
Media Art 2012

옛 전남도청과 전일빌딩, 아시아문화마루가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는 거대한 캔버스로 변신한다.

광주문화재단은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과 전일빌딩, 아시아 문화마루 일대에서 '빛과 사람'을 주제로 한 '페스티벌 오! 광주-미디어아트 2012'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의 미디어아트 부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및 미디어 아트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며 미디어 아트를 일상에서 즐기는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외 미디어 아트 작가 37명이 참여해 미디어 파사드를 비롯한 실험적인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미디어 파사드'란 '매체'(media)와 '건물 전면'(facade·불어)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에 빛과 영상을 이용해 건물을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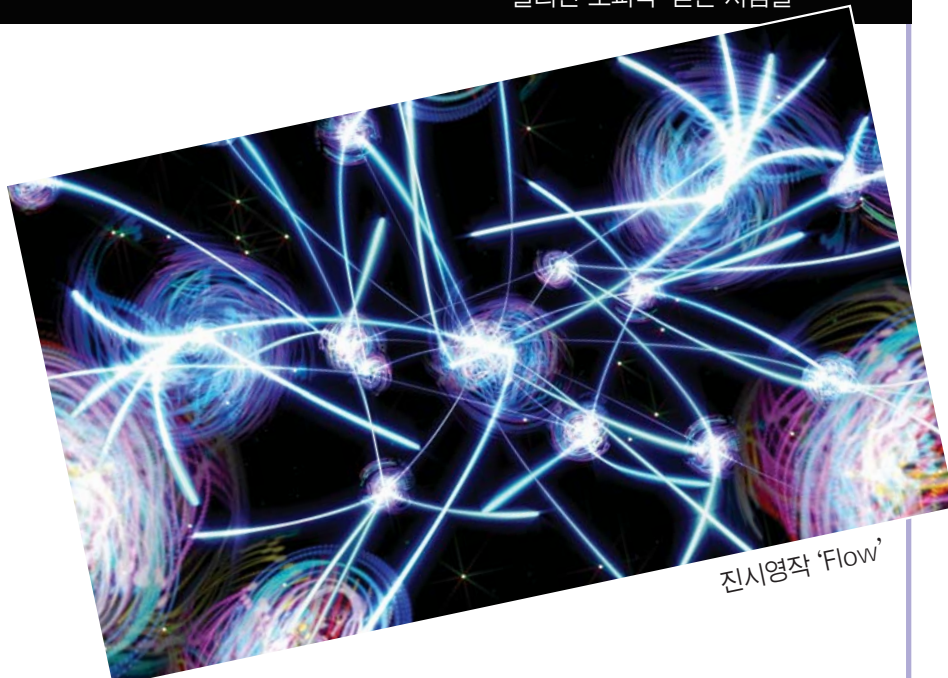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술용어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 포스트 팝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줄리안 오피의 디지털 미디어 작품인 '걷는 사람들'(Walking People)이 전일빌딩 벽면(가로 40m·세로 23m)에 선을 보이게 된다. 군중들이 감춰려 흘려가는 듯한 모습을 담은 '걷는 사람들'은 서울스퀘어에서 선보인 바 있다.

또 진시영 작가는 '흐름'(flow)이라는 3분짜리 영상 작품을 도청·전일빌딩의 '미디어 캔버스'에 선을 보이고 가수 2NE1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던 마리킴은 'Hate

광주문화재단 내달 5~7일 '미디어 아트전'

작가 37명 옛 도청·전일빌딩 등에 실험작품



진시영작 'Flow'



이이남작 'in-the-car'

합한 미디어 퍼포먼스 등 짧은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들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

진시영 '페스티벌 오! 광주-미디어아트 2012' 총감독은 "이번 페스티벌은 희망의 상징인 '빛'과 모든 것의 근본인 '사람'을 주제로 역사와 최첨단 현대미술이 결합, 광주가 새로운 빛의 도시로 도약하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면서 "'문화수도'에 사는 시민들이 새로운 미술 영역으로 자리잡은

미디어아트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단은 다음달 5일 오후 7시 30분 5·18 민주광장 분수대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6일 줄리안 오피의 작품을 상영하는 한편, 7일에는 짧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유일 남자 도슨트 전남대 공용배 씨

“어려운 작품 쉽게 설명해 드려요”

공용배(25·전남대 철학과 4년)씨는 요즘 미술 관련 자료와 작품을 보느라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인문학 전공에 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도 적었던 탓에 당장, 40개국 92명(팀)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정리하는데도 벅찬 형편이다.

공씨는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기간 활동하게 되는 도슨트(docent)다. 도슨트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작품 등을 소개하는 안내인이자 해설가로, 공씨는 83명이 몰린 올 비엔날레 도슨트 모집에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선발됐다. 36명 중 유일한 남자 도슨트이기도 하다.

공씨는 "도슨트 응모자들 가운데 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면서 전시 경력까지 갖춘 전문가들이 워낙 많았으니 선발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면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인문학 전공자인 것을 감안, 관람객들에게 예술 세계와 연관된 철학적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신 것 같다"며 웃었다.

관람객 편에서 보자면 누구보다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주는 현장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게 도슨트라는 점에서 부담도 적지 않다. 열심히 하는 다른 도슨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 지식을 챙기는데 적극적인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공씨는 비엔날레 도슨트 선발된 지난 6월부터 유명 큐레이터와 미술 전문가들의 강의를 비롯해 현대미술감상 교육,



강의를 통해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 및 세계에서 확고한 위상을 수립한 국제 미술제인 줄 실감했다"고도 했다.

공씨는 특히 "광주만을 위한 새로운 작품 수집여정이 한꺼번에 선보이는 이번 비엔날레는 절대 놓쳐서는 안될 행사"라며 비엔날레 전시관에 들어서면 처음 만나는 미국 작가인 마크 브래드포드의 작품을 추천하기도 했다.

공씨는 "인문학도도 순도 높은 나만의 느낌을 표현하면서 일반 관람객들이 거부감없이 비엔날레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심에 쓰레기 괴물이 나타났다

극단 청춘 17~18일 환경극 '괴물 살려' 남구문예회관

극단 청춘이 우당탕탕 재미있는 가족 환경극 '괴물 살려'를 무대에 올린다. 17~18일 오전11시·오후2시·4시, 광주 남구문예회관.

201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일환으로 제작된 '괴물 살려'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구성된 괴물이 도심에 나타나고, 한 아이를 납치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극단 단원들이 공동 창작했으며 김은미·최희영·황민형·문유미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가격 1만원, 헌혈증을 기부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남구주민, 전화에매 30%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다.

청춘은 또 극단이 운영하고 있는 퍼블릭 프로그램 참여자, 관객들과 함께하는 '디오니소스 페스티벌-드래곤볼-Sum-



mer 놀자'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19일 남구문예회관 극장과 로비 일원.

이날 행사에서는 주부극단 '여배우, 제석엄마 금당씨', 어린이의 극단 '동네방네 꾸러기' 연극수업 전시와 영상, 환경 전시회, 콘서트 한마당, 동화극연과 그림자극 공연, 인형극 공연, 콘서트 한마당(댄스·노래·마술·관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http://cafe.daum.net/cctheater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 ‘26년’ 제작 시민의 힘으로”

광산구 모금활동

광주 광산구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26년'의 제작 두레에 참여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산구는 재직 중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모금활동을 벌여 영화제작사

'청어람'에 일괄 납부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 말까지 동 주민센터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26년' 제작 두레를 홍보하고 영화사 홈페이지(http://www.26years.co.kr)를 통한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만화가 강풀 원작의 '26년'은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과 연관된 조직폭력배, 국가대

표 사격선수, 현직 경찰, 대기업 총수, 사설 경호업체 실장이 26년 후 학살 주범을 단죄 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2008년 제작에 돌입했으나 지난 4년 동안 투자가 보류돼 제작이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제작이 재개돼 지난 7월부터 촬영에 들어갔다.

청어람 측은 지난 3월부터 제작 두레를 통해 제작비 마련에 나서 7일 기준 7000여 명의 참여로 제작비 3억7천만 원을 모금했다.

한편, 제작 두레는 우리 고유의 '두레'를 본받아 시민의 힘으로 제작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최승렬기자 srchoi@

토지문화재단 '청소년백일장'

토지문화재단은 소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선생의 문학정신과 생평사상을 가리기 위해 전국 청소년백일장을 개최한다.

박경리문학제의 주요 행사중 하나인 청소년 백일장은 초·중·고(대안학교 포함) 재학생 및 해당 연령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9월 1~18일까지 '풀'(草)을 주제 또는 소재로 쓴 작품을 우편으로 접수해 예선을 치른다. 출품작은 시(시조 포함) 3편 이상과 산문이 다. 문의:www.tojicul.or.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